

세계를 무대로 뛰는 한국여성 열전

해외체험은 자랑 아닌 일상이라고 말하는 책들 호응얼어

경제적으로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도서들이나 국제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체험적 에세이류들에서도 '세계화'가 단지 슬로건이 아닌 피부 속 깊이 파고든 현실임을 웅변하고 있는 책들이 많다.

흔히 '인간조건'이라면 불가항력의 존재론적인 한계상황을 일컫는다. 슬픔, 죽음, 벼락 같은 사랑 등이 그것이다. 최근 「세계시민 입문」(박영률출판사)을 펴낸 최병권씨(문화일보 부국장 대우 문화부장)는 21세기의 인간조건으로서 '세계시민'을 추가한다. 문경 과수원집 농부가 자신의 경쟁상대를 덴마크 농민으로 지목할 만큼 국제화의 추세는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감 넘치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저자들의 책이 서점에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다.

세계시민 자격증은 21세기 '인간조건'

세계시민의 자격증을 획득한 여성들의 책들이 바로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문패를 내건 세계시민 여성들만 꼽아도 「스물셋의 사랑 마흔 아홉의 성공」(문예당)을 쓴 조안 리, 「민헨의 노란 민들레」(고려원)와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디자인하우스)의 저자 김영희, 「푸나의 추억」과 「자유를 위한 변명」(정신세계사)를 쓴 홍신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제일미디어)를 쓴 조수미씨 등이 있다.

위 저자들의 공통점은 국내보다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분야에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여류명사라는 점. 이들의 저서가 일반독자

들에게 호소력을 갖게된 데는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국제화하는 시대조류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안 리의 책을 기획한 문예당의 한봉국씨(영업부장)는 "지금까지 각광받은 여성필자들의 책은, 여성의 삶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적 장애요소를 폭로하는 페미니즘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이혼을 급증에 따른 여성들의 홀로서기를 강조한 내용으로 분류됐다"면서 "조안리 바람은 이 틈을 헤치고 들어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화시대에 응전하는 우리 삶의 단면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한봉국씨의 말대로 조안 리의 책은 스승이면서 신부인 길로연 신부와와 지난한 사랑을 바탕에 깔고 있기는 하지만 간박하게 펼쳐지는 국제무대의 비즈니스가 전면에 걸쳐 박진감 넘치게 전개된다. 차세대전투기를 둘러싼 율곡사업의 내막, 1970년대 말 나이저리아와 수교를 맺게 된 이야기 등 국제 비즈니스 우먼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경험을 통해 저자 자신이 개입된 여러 사건의 비화를 들춰보이고 있다.

다종이 인형작가 김영희씨의 두 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81년 이후 독일에서 살면서 유럽에서 60여차례의 개인전·그룹전 등을 통해 한국사람 얼굴의 다종이 인형을 국제적 상표로 만든 저자의 솔직한 이야기가 독자들의 호감을 사서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의 경우 책 발간 보름만에 3만부가 팔렸다고 한다. 책 내용 또한 삶의 뒷이야기, 좌절, 그리고 극복과 함께 예술가로서 국제무대를 끌어



국제화 계몽서에 이어 체험적 에세이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고 살아가는 저자의 삶을 담고 있다.

세계적 여류명사 에세이류 큰 호응

「푸나의 추억」과 「자유를 위한 변명」은 뉴욕에서 무용단 '래핑스톤'을 이끌고 전위무용가로 활동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홍신자씨가 무용가로서의 활동, 그리고 인도에서의 구도체험, 20년이 넘는 미국생활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에세이. 난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자기 삶을 개척한 한 인간의 생생한 체험의 기록으로 읽히는 책이다.

“돌아보니 나의 20대는 고스란히 노래에 바쳐졌다. 서른이 되기 전에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 선다는 나의 꿈은 이뤄졌다.”

세계 오페라 무대를 휩쓸고 있는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씨가 자서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의 서문 중 일부 내용이다. “몇년동안 국제무대에 뿌리를 내리느라고 힘들었고, 숲을 헤치고 멀리도 왔어...” “어떤 사람들은 동

양여자가 어린 나이에 세계무대의 끝까지 가 버렸다고 해. 하지만 그게 아냐”란 저자의 진술에서 보듯, 조씨의 책은 국제적 무대에 서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한껏 표현되어 있다. 자아실현의 무대가 지구촌이었던 셈이다.

옛 로마황제 아우렐리우스는 북방의 한 국가를 정복한 후 “나는 로마사람이 아니라 세계시민”이라고 외쳤다. 20세기까지의 코스모폴리탄은 그렇게 강대국의 패권주의 핵우산 아래서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다. 변방의 약소국 국민들의 '해외진출'은 기실 정치경제적 궁핍과 환란 때문에 쫓기듯 떠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해외진출의 역사는 유민·이민사에 다름아니었다. 위에 기술된 책의 저자들은, 국제화시대에는 세계시민의 호적에 등재되는 일이 운전면허 따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김중식 기자

정통 北京語 정복을 위한
체계적 학습서

初級中國語教科書 1
₩ 5,500(녹음테이프1개 별매 ₩3,000)

初級中國語教科書 2
₩ 5,500(녹음테이프1개 별매 ₩3,000)

中級中國語教科書
₩ 5,500(녹음테이프3개 별매 ₩9,000)

무역중국어의 이론과 실제

貿易中國語入門
張靜賢 著 / 梁敬愛 編譯 ₩9,000
녹음테이프6개 별매 ₩19,000

새로운 中國語 世界로의 초대!

中國語 정복의 꿈, 知永社가 도와드립니다

旅行中國語會話

편안한 중국 여행을 위한 회화책

지영사 편집부/ 값 5,000원

수준 높은 中國語를 위한
실용적 학습서

時事中國語入門
白崇乾의 공저/ 편집부 옮김 ₩7,000

高級時事中國語
崔寬藏 著 (외국어대 교수) ₩7,000

중국어 작문의 바이블

實用中國語作文
宇仁浩 著(외국어대 교수) ₩7,000

각종 중국어 시험을 위한
핵심적 학습서

短期完成 受驗中國語
金基哲 著(외국어대 강사) ₩13,500

HSK單語解説
林琬 編著 ₩6,000

중국어의 승부는 듣기에서

初級中國語教科書 聽力練習1
교재1, 녹음테이프4개 포함 ₩15,000

初級中國語教科書 聽力練習2
교재1, 녹음테이프4개 포함 ₩15,000

中級中國語教科書 聽力練習
교재1, 녹음테이프7개 포함 ₩24,000

알기 쉬운 문법 학습서

現代中國語文法
劉希明 의 공저/ 梁敬愛 編譯 ₩ 8,000